수강신청 ON-LINE방식 전환

(수원) 수업결손방지 예산절감효과 기대돼

수원캠퍼스 교무과는 2학기부터 수강신청방법을 기존 OMR 방식에서 LAN을 이용한 ON-LINE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ON-LINE 방식이란 학내의 전산망시스템이 완결됨에 따라 LAN이 각 과에 있는 컴퓨터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학생개인이 직접 키보드를 조작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수강신청 방법은 먼저 1. 자신이 작성한 수강신청용지를 가지고 2. 컴퓨터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학번을 입력하고 3. 이수구분((예)전공교양-2)과 학수번호를 누르면 교과목, 학점, 교수명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동시에 화면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수강신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이며 외대, 공대, 체과대는 전자계산소 실습실에서 사회대, 산업대는 사회대 PC실에서, 자대는 자연대 PC실에서 각각 실시한다.

한편, 변경된 수강신청 방식에는 대형강의를 배분해서 한 강의당 1백30명이상이 수강할 수 없도록 한 정원이 개선되었다. 이는 종더 강의에 양질의 내용을 담기위한 것으로 제2의 국어의 경우는 외국어의 특성상 제한인원을 80명으로 두게 하였다. 따라서, 수강하려는 학생수가 그 한도를 넘으면 입력이 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과 달리 정정기간을 두지않고 폐강과목, 시간이 중복되는등의 경우에만 정정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대해 교무과 김인득 주임은 "수강신청결과가 하루만에 나오게되면 기존 OMR방식에서 나타났던 비효율적인 학사일정의 지연등이 개선되어, 학생의 수업결손을 줄이고 직원들의 행정력절손도 막으며, 예산절감에도 커다란 이점이 있을것"이라고 밝히고 새롭게 방식이 바뀌는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따른 서울캠퍼스의 일정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송보영 記者〉

서울 대외장학 3억3천여만원

학생처 발표, 작년보다 1억여원 증가

서울캠퍼스 학생처는 93학년도 1학기 대외장학금이 3억3천81만3천3백40원이라고 발표했다(대학원 2천7백30만2천90원 지급 포함)

학생처의 발표에 따르면 총 수혜자는 5백9명(대학원 28명)이고 총액은 작년의 2억3천여만원에 비해 약 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장학금지급은 다음과 같다. ▲보훈장학-7천4백28만4천1백원 ▲복지장학-4천20만원 ▲한국장학-2천9백28만1천5백50원 ▲농협공제회-2천1백만원 ▲한국지도자육성회-7백31만4천6백50원 ▲한국통신공사-6백83만5천50원 등 각단대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경경대가 1백47명에 7천2백67만7천5백원이 지급되어 총액과 수혜자가 가장 많고 문리대가 1백11명에 6천5백26만9천9백50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교내장학은 총1천6백96명에 10억5천96만1천6백90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학신문 자주화 공연

오늘 오후 홍익대서 폐막

전국 대학 신문 기자 연합과 대학신문 86 동우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언론 노동조합 연맹, 한국 기자 협회, 민주 언론 운동 협의회, 한국 주월간 전문 기자회, 바른 글을 위한 자유 기고가 모임, 에드라인, 해렬드 인쇄소 등이 후원하는 '대학 신문 자주화를 위한 소리쟁 문화 공연'이 24일 오후 4시, 7시 두 차례 홍익대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이미 19일 부산 동아대에서, 21일에는 전남대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23일에 이어 24일 홍익대에서의 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지리학과 실습비문제 일단락

양측간 합의서 작성,유감표명도

서울캠퍼스 문리과대학 지리학과의 실험실습비문제가 지난 19일 학과교수와 학생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지리학과 합의서의 내용은 ▲실험실습비가 올바로 사용되지 못한점에 대한 前학과장 김중귀교수의 유감표명 ▲실습비의 예결산 공개, 예산안 작성시 학생측 건의안 참조 ▲前학기 성적 3.0이상인 과대표에 장학금 지급 ▲신문보도(한국일보 5월1일字)로 인한 교수의 명예훼손에 대한 학생회 유감표명 등 9항에 걸친 것이다.

김중규 前학과장은 합의서 작성후 지리학과 학생들에게 실험실습비문제에 관해 유감을 표명했고 학생회장도 신문보도로 인한 교수들의 김현국 명예훼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지난 4월27일부터 전공과목에 대해 수업을 거부해왔던 지리학과 학생들은 오늘부터 정상적인 학사일정에 복귀할 예정이다.

"통일의 자전거 대행진"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 염원을 담은 '경희가족 자전거 대행진'이 지난 19일 입재식을 출발, 독립문을 경유하여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으로 이어졌다.

조국분단 반세기의 사점에서 천만이산가족의 통일의 염원을 싣고 7백여명의 자전거 바퀴는 힘차게 굴렀다. 〈박경희 記者〉

'강의 평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지난 20일 '강의평가 모델 개발계획'에 따라

수원캠퍼스 연구처는 지난 20일 오후4시 체육교육관 시청각실에서 '강의평가연구교수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간담회는 연구처가 강의능력 향상과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강의평가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3월17일 전체교수회의에서 발표한 이후 추진중인 '강의평가모델 개발계획'을 위한 것으로 34개과 교수 69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교수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4가지 강의평가 시안중 택일하거나 수정또는 새로 작성하여 이번학기 최종 수업시간에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서를 연구처에 제출하게 된다.

연구처는 이번에 제출될 강의평가서를 자료로만 활용하고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후 실질적 업무점행을 위해 모델 개발결과를 교무과에 이월할 예정이다. 구체적 모델개발계획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의평가서 인쇄및 배포=오는 28일 ▲강의평가=오는 6월 1일부터 6일까지 ▲강의평가서 제출=6월20일 ▲강의평가 모델개발위원회 구성=6월20일 ▲강의평가서 분석=6월20일부터 7월20일까지 ▲강의평가모델시안작성=7월20일부터 7월30일까지 ▲연구교수제2차간담회=8월25일 ▲강의평가제에 대한 세미나=9월8일 ▲최종보고서 제출=9월15일

휘제노트

"7공 정부의 부르스 타임(?)"

◇…어둠에 취해 비틀거린다(?)

고황골의 밤은 취해 비틀거리는 꾀형들로 가득하다는데.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움에 헛디딘 발로 술이닌 어둠으로 비틀거린다는 것. 나무 많고 계단 많은 고황골의 특없이 모자란 가로등 때문이라고. 덕분에 여름이면 우범구역으로도 변한다나.

해마다 어김없이 가로등 건의는 나오는데 설치한다는 말 없으니 내년에도 또 새내기들의 건의문 보겠네.

노트7 지난 밤 헛디딘 뻔 발목의 아려옴을 느끼며 조심조심 내디뎌 본다.

◇…가로수가 걸린 병(가로수의 新病)

요즘 서천골 가로수들이 은빛 비늘이 돋은 채 허리끈을 묶고 시들어가는 보도 들도 못한 병에 걸렸다는데.

다들아닌 대동제를 맞아 행사를 알리는 대자보·현수막들을 가로수에 고정하기 위해 꾀형들이 끈을 칭칭 동여매고 압정들로 허리끝 콱 콱 찍어 버린다나.

1년에 한번 뿐인 중요한 대동제 행사를 치르느라 골병드는 가로수들.

노트7 대동제 끝나 가로수들 대신하여 한마디 하겠소.

"꾀형님들, 가로수에게 붙은 줄과 압정들을 좀 떼어주오"

◇…검찰의 슬로우 모션

7공정부의 사정여행이 관련 청사에서 출발하여 교육부, 군부를 거쳐 오락실에서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는데.

검찰은 '슬롯 머신'의 승률조작 등 권력과 주먹세계가 연계된 이번 수사에서 '슬로우, 슬로우'스텝을 밟고 있다고.

노트7 원컨데,

검찰은 '부르스 타임'을 끝내고 발걸음을 빨리해 진정한 부패의 근원지를 향해 전진해 주기를 바랍뿐이외다.

◇…주인없는 대동제

'아!' 이번 대동제에는 가수 ○○가 나온다더라. 와! 그 개그맨 억수로 웃기더라.'

바로 이것이 경희인의 하나님을 위한 대동제가 연예인들의 무대가 되어버린 현실이올시다.

지난 대동제에서 연예인들의 출연이 있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각 단대 화합의 마당에는 인적이 드물었다고.

스스로의 참여없이 연예인들의 출연만 즐기는 꾀형들! 진정한 하나됨은 꾀형들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오.

◇…제2의 난지도

자연과학대를 갈려면 난지도를 거쳐야 한다는 말에 노트7 알아보니 도서관 공사장 앞으로 펼쳐진 벌판이 난지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패인 웅덩이엔 썩은 냄새, 여기 저기에 자리잡은 쓰레기 군단. 그 옆으론 버려진 우려내 양심도 보인다고.

꾀형들, 주위환경개선을 위해선 먼저 잃어버린 양심부터 다시 찾는게 순서가 아닐런지.

◇…5·18을 묻지마라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심볼들.

두부처럼 잘라대는 너의 시퍼런 칼자루

왜 맞았지, 왜 찔렸지, 트럭에 실려 어디갔니

망월동에 부릅뜬 눈 몰어서 내게 묻지마라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우리 가슴에 근심 치솟네

김귀정열사 제2주기 추모제

고 김귀정열사 제2주기 추모제가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성균관대 금잔디광장에서 열린다.

23일 모란공원 묘소참배를 시작으로 하여 24일에는 오후5시부터 추모전야제 '추모 문화의 밤'이 열리며 23일에는 추모사업회 발기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추도식은 25일 성대 금잔디광장에서 열리며 식후에는 대한극장앞에서 노제를 지낸다.

김귀정 열사는 지난 91년 5월 노태우정권의 타도를 외치다 집회도중 전경의 폭력진압을 피해 몰려가던 학생틈에 끼려 숨졌다.

본교 '92 논문집 출간

본교 제21호 논문집이 발간되었다. 지난 92년도에 교내외에서 발표된 본교교수들의 논문들을 모아 출간된 이번 논문집은 인영수(문리대 영문)교수의 'T.S Eliot의 시와 비평에 나타난 낭만적 특성'등 43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끼나가 쇼이찌 명예박사

본교는 일본의 오끼나가 쇼이찌(永莊一)씨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쇼이찌씨는 56년 동경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63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66년부터 데이꼬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91년부터는 일본 밝은사회운동본부총재로 재직중이다.

교내단신

▲본교 합창단(GLEE)은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크라운관에서 제8회 춘계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가곡, 남성합창, 여성합창, 혼인영가등 4부로 나눠 공연한다.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학생회는 6월3일 오후 2시 공대시청각실에서 '제10회 모의상사중재회의'를 개최한다.

무역학과에서 주최하는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문제와 요즘 새로운 무역방식으로 떠오르는 ISO9000시리즈를 주제로 한다.

이번 행사의 연출은 이승재(무역·2)군이, 극본은 이승철(무역·3)군이 맡았고, 무역학과 학생들 15명이 출연한다.

▲본교 전자공학과에서는 첨단과학기술 및 산업화 연구에 관련된 제4차 공개강좌를 오는 25일 1시 30분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차세대 국내위성의 'Enginnering계획'이라는 주제로 윤장용(한국통신 기술본부장)박사가 강연을 하게 된다.

▲본교 108학군단은 오는 29일 오후 6시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제32회 경무제'를 마련한다.

학군단 동문 선·후배의 유대를 돈독히 하기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번행사는 태권도 시범, 중창, 청춘극, 노래 메들리등으로 꾸며진다.

올 경무제는 예년의 발표위주 행사에 비해 레크레이션등으로 장기자랑등 개인참여 순서가 다채롭게 마련되고 있다.

▲수원캠퍼스 하드락그룹 '고려품세'는 오는 26일 4시부터 공대 시청각실에서 봄정기 공연을 한다.

고려품세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고풍'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Top Of The World', 'Rest In Dence', 'Stop The World', 'Tears In Heaven' 등 20곡을 선보인다.

봄·가을 정기공연과 외부초청공연, 12월 대외공연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고려품세'는 이번 공연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화합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1993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은 교무처 교무과에서 지정하는 기일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전 방법과는 달리 93학년도 1학기부터 LAN을 이용한 ON-LINE방식에 의해 수강신청을 실시하는 관계로 전교생은 반드시 아래의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수강신청에 임할 것
2. 아래의 제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할 것
3. 수강신청에 관한 문의는 소속학과 사무실, 대학 교무실, 교무처 수업계의 안내를 받을 것
4. 수강신청 일정
   1)학과 학년별 수강 신청 기간:93.6.2(수)~6.10(목) 7일간
   가)수강신청장소:외대, 공대, 체대(전자계산소 실습실 107호)
   사회대, 산대(사회대 PC실습실)
   자연대(자연대 PC실습실)
   나)시간:10:00~17:00
   2)야간학과의 수강신청 기간
   가)수강신청기간:93.6.2(수)~93.6.10(목)
   나) 시간:16:00~17:00
   다)장소:러시아(전산소실습실), 국제관계(사회대실습실)
   3)교과목 개·폐강 확정 공고(1차):93.6.11(금)
   4)수강신청 확인및 정정:6.14~6.16
   5)복학생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8.30(월)~9.3(금)
5. 수강신청 절차
   1)학과사무실에서는 수강신청용지를 당일 해당학년 학생에게 배부한다.
   2)학과장및 지도교수는 수강신청 기간에 철저한 수강지도를 하여야 하며 특히 3, 4학년 학생의 수강지도는 반드시 성적표를 참조하여 현재까지 취득한 학점을 확인하여 수강신청 지도를 하여야 한다.
   3)강의시간표를 참조하여 수강신청용지에 이수한 교과목들을 기재하되 이수구분, 학수번호, 분반번호, 학점, 교과목명, 담당교수명을 정확히 기록한 후 학과의 지도를 받는다.
   4)학과담당조교는 학과장의 확인(날인)사항을 확인하여 학생들이 직접 터미널로 전산입력 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
6.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1)LAN을 이용한 ON-LINE 수강신청 방식은 추후에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소정기간내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수강신청을 포함한 모든 수업업무는 전산처리 되므로 수강신청 용지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이수구분 번호, 학수번호, 분반번호를 혹색, 청색 볼펜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기재한 내용을 학생본인이 직접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터미널로 전산입력한다.
   3)대리수강신청을 불허하며 대리수강신청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본인의 책임임.
   4)수강신청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①강의시간표의 변경 ②폐강·합반·분반하는 경우 ③학수번호의 오기에 한하여, 지정기간내에 변경할 수 있다.
7. 수강신청입력교과
   1)대상:학과조교, 단대 교무주임
   2)기간:5월31일~6월1일

시스템 사용 설명 강의시간표 참조(오는 26~7일 발표)

1. 수강신청 입력 및 수정

FORM-NAME:SUG301 KYUNG-HEE UNIV C.C.
CAMPUS:(1:서울2:수원) 수강신청 입력 및 수정 비밀번호:수강자의 주민등록번호
학 번:0390169999

성명:홍길동 학년:2 학과:영어영문학과 신청과목:7 신청학점:20.0

구분	이수학수번호	분반	교 과 목 명	학점	교수명	도 움 말
4	NA201		영어문법론 1	3.0	배태영	구 분
4	NA202		19C 영국소설	3.0	전수용	D:삭 제
5	NA203		19C 영시	3.0	원용순	입력, 수정시
5	NA209		문예사상사	3.0	신명아	ENTER KEY
5	NA211		영어작문 2	3.0	남요한	F-KEY(기능키)
5	NA212		영어회화 4	3.0	도로수	F2:후 진(BACK)
8	ZU008	03	보건학	2.0	김숙형	F5:확 인(Y/N)
						F7:취 소(학번)
						F8:구 분 JUMP
						F9:작업종료
						확인란(Y/N)설명
						Y:UPDATE
						P:UPDATE및 출력
						N:작업무효

YES/NO 입력후 RETURN KEY를……Y(Y/N)

〈처리내용〉

본 화면은 재학생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을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는 작업이다.

〈항목설명〉

1)대학 구분:대학 구분은 자동 Display(프로그램에서 제어)
2)비밀번호:입력자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
3)학 번:해당 학번 입력
4)성명, 학과, 학년, 신청과목, 신청학점은 학번에 의하여 자동 Display
(신청과목 및 신청학점은 입력 및 수정시에는 변동이 없으나 Update 시킨 후 학번조회하면 프로그램상에서 계산)
5)구 분:'D'를 입력하면 해당 학수번호 삭제
6)이수구분:해당 이수구분 입력(이수구분 코드 참조)
7)학수번호:해당 학수번호 입력
8)교과목명, 학점, 교수명은 학수번호에 의하여 자동 디스플레이
9)구분, 이수구분, 학수번호를 신청과목 수만큼 반복 수행
10)확 인:'Y' 입력시 Update
'C' 입력시 14과목이 초과한 경우 계속 입력
가)구분란에서 'D'를 입력하면 해당 학수번호 삭제
나)입력, 수정시는 Enter Key 입력 구분란에서 'D'대신 이수구분 및 학수번호를 입력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 입력된다.
다)신청 과목수가 14과목이 초과할 경우 확인란에서 'C' 입력후 Enter Key 입력하면 1번부터 14번 지우고 15번부터 입력을 받게 된다.
11)작업 종료시 학번 입력란에서 999999999(9개)를 입력하면 작업이 종료된다.

2. 수강신청 입력 및 수정방법
   가)입력자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한다.
   나)입력자의 학번(9자리)를 입력한다. 단, 88학번 이후 학생은 맨 앞자리에 00을 입력한 후 학번(7자리)를 입력한다.
   다)주민등록번호와 학번을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으로 원위치된다.
   라)주민등록번호와 학번을 올바로 입력시켜야만 학과, 학년, 성명이 자동으로 Display된다.
   마)구분란에는 삭제할 교과목이 발생될 경우 'D'를 입력한다.
   바)이수구분은 0~8번까지 정수로 입력한다.
   사)학수번호와 분반번호를 입력한다. 단, 분반번호가 없는 교과목은 학수번호를 입력한 후 Enter를 친다.
   아)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명은 학수번호와 분반번호에 의하여 자동 디스플레이 된다.
   자)입력 교과목 수만큼 반복 수행한다.
   차)수강신청 입력을 완료하면 F5키를 친다.
   카)확인란에서 'Y'를 입력하면 수강신청 입력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타)확인란에서 'N'를 입력하면 입력한 수정신청 내용 전체가 무효된다.
   파)수강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학과에서 수강신청 입력을 할 수 없음.
   하)수강신청이 종료되면 수강신청 입력한 확인용 자료를 개인별로 배부할 예정임.

※지세한 사항은 수원캠퍼스 교무과(☎0331-280-2011~3)로 문의 바람.

수원캠퍼스 교무처장